

“공허해진 약속들…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할 것”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4주기

안정호 유가족 대표 “기억 공간 조성하고 책 집필” 추모식 거행·사고현장 행진…추모객 “희생자 애도”

“그날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네요.”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인 11일 안정호(48)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사고 당시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 대표 역시 이 사고로 매력을 잃었다.

안 대표는 “사고 이후 약 3개월간 운전 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평범한 일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순간에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었다”고 회상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직후부터 서로의 결을 지키며 슬픔을 견뎌왔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던 29일 동안 현장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버텼던 시간,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떠나지 못했던 기억은 지금도 유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안 대표는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며 “아픔을 나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안 대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 사무실 마련과 추모 사업 등을 약속했지만,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4주기 당일인 11일 안정호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사고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자가 바뀌고, 논의는 흐려졌으며, 약속은 미뤄졌다”며 “유가족들은 어느 순간부터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대표는 “구청 역시 시공사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택했다. 사비를 모아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참사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붕괴사고 이후의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재난은 찾아온다(가정)’라는 책을 펴낼 계획”이라며 “사고 이전과 이후,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 인근에 작은 표지석이나 기억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언제든 참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대표는 “거창한 기념물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며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1일 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한 추모 공간에서 추모식과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오전 10시 위령제와 분향소 운영을 시작으로 오후 3시 추모식, 오후 4시 사고 현장 행진에 참여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현산, 화정아이파크 4주기 추모·안전 결의대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현장 안전 의식을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단지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식과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이 참석해 분향과 현화,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린 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현장소장과 안전·품질 책임자들

은 사고가 발생했던 201동을 찾아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한효 현장소장은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며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현재 8개 동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달 중 골조 공사를 마치고 준공까지는 앞으로 약 1년이 소요돼 2027년 초 입주가 예정돼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눈폭탄’…시민불편 가중

무안 남약 23.9cm 등…강풍 신고·미끄러짐 등 속출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지역 내 적설량은 무안 남약 23.9cm를 최고로 목포 연산동 20.2cm, 해남 산이면 18.8cm 등을 기록했다. 광주에 도 3cm 안팎의 눈이 떴다.

앞서 무안과 해남, 목포에는 대설경보가, 나주와 장흥, 강진, 완도, 영암, 함평, 진도 등 10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무안과 해남, 목포에 발효된 대설경보는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됐지만 완도와 영광 등 3개 군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폭설과 함께 강풍과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남에서는 지역 여객선 45개 향로 58척의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가 이후 33개 향로 38척으로 완화됐다.

또 구례 노고단,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목포 다부잣길, 무안 만남의 길, 진도 두목재는 아직 통제 상태다.

눈길 미끄러짐 등 사고 사고도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강풍에 따른 소방활동이 8건 접수됐다. 이 중 낙하위험이 5건이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까지 낙상과 안전조치 등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청은 12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안전 대비에 주의가 요구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눈썰매 즐기는 관광객들 휴일을 맞아 11일 오후 담양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10년 폭행·신체 포기각서 강요한 업주 재판행

폭언·심부름 강요…상습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0년 넘게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며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활동팀 부장검사는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악사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목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파악됐다. 처방약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변제이행 각서까지 추가로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B씨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 넣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극심한 과롭함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는 보관 중이던 신체 포기각서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검찰은 문서 감정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냈다.

임영진 기자 looks@

함평 붉은박쥐 활동 범위 ‘최대 18.38km²’

영산강유역환경청 연구…대동천 등 국내 최대 규모 서식

전남 함평에 서식하는 붉은박쥐의 활동 범위(행동권)가 최대 18.38km²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밭간경인 붉은박쥐 행동권 및 서식지 특성 연구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관찰된 붉은박쥐 16개체의 평균 행동권은 0.64km²에 서 최대 18.38km², 평균 5.68km²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부터 2025

년 11월까지 국내 최대 붉은박쥐 집단 서식지에서 포획 개체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과 서식 환경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붉은박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몸 전체가 오렌지색을 띠고 귀 가장자리와 코끝, 뒷발 등이 검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호지역 경계 밖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계절별 행동권 변화도 뚜렷했다. 붉은박쥐의 행동권은 여름철에 4.39~18.38km²로 가장 넓었고, 가을은 3.64~8.85km², 봄은 0.64~10.42km²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량과 면이활동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서식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생태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핵심서식지, 즉 주요 채식지는 강운·대동·수암 저수지와 대동댐, 응천사, 대동천 일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림 기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평균 0.12~2.31km² 수준이었다. 행동권 범위 내 고도는 5~445m, 평균 160m로 분석됐고, 붉은박쥐는 전반적으로 저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핵심서식지의 고도는 20~279m로 낮았으며, 평균 경사도 역시 20도 미만의 완만한 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붉은박쥐의 안정적인 서식과 개체군 보전을 위해 △핵심서식지 집중 관리 △보호지역 주변 원종 서식지 관리 △동면체 출입 제한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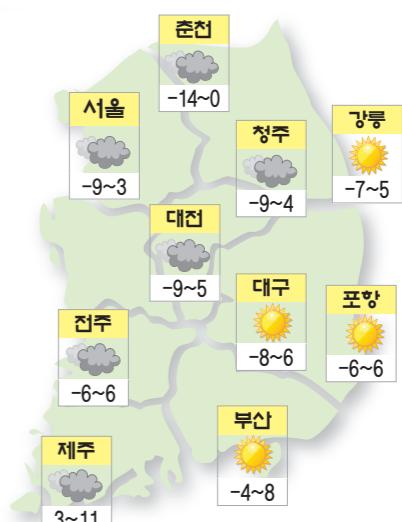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다수의 붉은박쥐 핵심서식지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 변화나 면이원 생활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붉은박쥐(황금박쥐)를 지역 생태자원으로 활용해 보전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황금박쥐생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동면 일대에는 체험·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황금박쥐 생태체험관도 조성했다. 군은 이를 함평나비축제와 연계해 멸종위기종 보전의 의미를 알리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해물 07:41
해진 17:41
밀물 01:53
밀진 07:14



광주	5~6
목포	-4~7
여수	-4~6
순천	-6~6
구례	-7~5
광주	-7~9
완도	-3~10
목포	2~10
여수	-7~8
진도	-2~9

밀물 (고) 08:46 / 20:36
썰물 (저) 01:23 / 14:07

밀물 (고) 03:48 / 15:18
썰물 (저) 09:41 / 21:49

입영 거부·도주 30대 실형

만년필 ○…상근 예비역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 장기간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유지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부를 통해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에도 허위로 만든 코로나19 확진 문자 메시지를 병무청에 제출, 입영 연기 청문을 받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병역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원심 판결에 따라 수감되거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불가피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